

군산시 먹거리정책과, 배 농가서 열매숙기 '팔 걷어'

군산시 먹거리정책과는 농촌 고령화와 가용인력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.(사진)

이번 일손 돕기는 서수면 마룡리 소재 배 과수원 박광현씨 농가에서 이뤄졌으며,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먹거리정책과 전 직원이 참여했다.

이날 직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, 개인 간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하며 열매숙기 작업을 진행했다.

박씨는 "일손이 부족해 힘든 상황이었는데 먹거리정책과 직원들이 힘을 보태줘 적기에 작업을 마칠 수 있



었다"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.

신동우 과장은 "농촌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게 돼 보람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

적으로 농번기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"고 말했다.

/군산=허정찬 기자

전북타임스

2021년 06월 08일 화요일 009면 지역

군산 농업기술센터,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 '두 팔 걷어'

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.

군산시 먹거리정책과는 농촌 고령화와 가용인력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.

이번 일손 돕기는 서수면 마룡리 소재 배 과수원(박광현 농가)에서 이뤄졌으며,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먹거리정책과 전 직원이 참여했다.

이날 직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, 개인 간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하며 열매숙기 작업을 진행했다. /군산=지송길 기자





군산시 먹거리정책과, 농촌일손돕기 실시

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. 군산시 먹거리정책과는 농촌 고령화와 가용인력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. /박수현 기자

군산시 먹거리정책과, 배 농가 일손돕기 팔걷어

군산시 먹거리정책과가 농촌 고령화와 가용인력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.

이번 일손 돕기는 서수면 마룡리 소재 배 과수원(박광현 농가)에서 이뤄졌으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먹거리정책과 전 직원이 참여했다.

이날 직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, 개인간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며 열매숙기 작업을 진행했다.

/순정일 기자

全北日報

2021년 06월 08일 화요일
014면 사람

군산시, 서수면 배 농장서 농가 일손 돕기 '구슬땀'

군산시는 최근 농촌 고령화와 가용인력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.

이번 일손 돕기는 서수면 마룡리 소재 배 과수원(박광현 씨 농가)에서 이뤄졌으며,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먹거리정책과 전 직원이 동참해 구슬땀을 흘렸다.

직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, 개인간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하며 열매숙기 작업을 진행했다.

농가 박광현 씨는 "일손이 부족해 힘든 상황이었는데, 시 직원들이 힘을 보태줘 적기에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"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.

신동우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장은 "농촌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 기쁘다"며 "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번기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 군산=이환규 기자